수산스님은?

평생 '이 뭣고' 화두참구
마라난타 기념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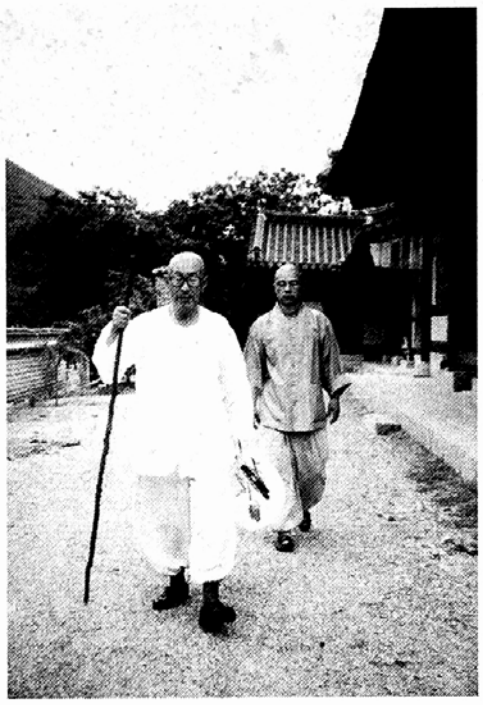
세수 80 이신 요즘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예불을 모시는 수산 스님은 참선과 계행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은 수행자다. 평소에도 가능한 눕지 않고자 한다는 스님은 만암 스님이 내려준 '이 뭣고' 화두 참구를 한 시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검소하기 그지 없는 수행자로 정평이 나 있다.

스님은 "어떤 선지식은 '이 뭣고' 화두에다 온갖 말을 다 갖다 붙이는데 그게 다 병통을 만드는 원인이야. 육조 스님께서 '이 뭣고' 앞에 갖다 붙인 말도 실제로 참구해 들어가는 데에는 조금도 필요가 없는 군더더기야. 다만 '이 뭣고 하는 이놈이 뭣고' 만 끊이지 않게 하면 돼. 그래야만 옳게 직입을 할 수 있어. 그런 가운데에서 세상일이고 참선이고 하다보면 '이 뭣고 하는 이놈이 뭣고' 라고 의심하는 주인공마저 없어지고 알 수 없는 의심덩어리만 온 법계에 가득할 때가 올 거야. 그런 경계에 다다르면 대장부의 일을 마칠 때가 된거지. 그렇다고 공부가 다 된 것이 아니야. 미세한 번뇌의 뿌리까지 남김없이 녹인 후에야 구해탈(俱解脫)을 증득했다고 할 수 있고, 전법도생(傳法度生)을 할 수 있다"고 늘 강조하신다.

1922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난 스님은 1938년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의 상좌인 법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봉하 · 만암 스님에게서 사미 · 비구계를 받고 수덕사, 정혜사, 다보사 선방에서 정진했다.

이후 고불총림 백양사와 부안 개암사, 완도 신흥사 등의 주지를 지냈고, 정광학원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스님은 불갑사 염화실에 주석하고 있으며, 백제불교의 뿌리를 찾는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영광군 법성포를 중심으로 '마라난타 기념사업' 추진에 헌신하고 있다.



◇불갑사내 백운당 신축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수산스님. 스님은 6월초 시작된 백운당 건축 현장을 매일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신다.

싶은 게 우리의 속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공에서 만들어졌다 공으로 다시 돌아가니 현상계는 전부 형체나 음성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부터 공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고 하신다.

죽을 때는 소중한 재산, 자손 모두 다 내던지고 가장 소중한 내 몸뚱이까지 내던지고 가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니 내 것이라 집착할 것이 도무지 없다고 하신다.

스님은 "마음자리는 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몸뚱이 있을 때 업을 짓고 가게 됩니다. 어떤 업이냐 하면 염불을 외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극락세계에 갈 반야용선을 탈 것입니다.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돈, 명예, 이름 이런 거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 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공덕입니다. 열심히 공덕 지으면 반드시 그 마음자리를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만을 위해 지은 업보와 죄를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삼독을 버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과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만암 스님처럼 부처님의 법을 충실하게 실천하며 살아야 해요."하신다.

이러한 생활을 위해 스님은 불자라면 일상에서 바른 신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 이를 말과 행동으로 옮기며 자성을 밝히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스님은 욕심 많은 사람을 꾸짖는 일에 물러섬이 없다. 누구나 자기 욕심을 앞세우다 보면 세상이 혼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욕심에서 벗어나는 첩경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일이라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불법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불자들 중에는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은 제대로 않으면서, 스님들에게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불교는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자기가 직접 부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자연히 공덕이 쌓아집니다."

늘 중생포교에 관심이 깊은 스님은 현재 영광군 법성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라난타 기념사업'에 온 노력을 쏟고 계신다. 이 땅에 전래한 불교의 뿌리를 찾고 한국불교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생각에서다. 스님은 영광군수를 수차례 만나, 법성포가 백제불교의 초전지이며 이를 영광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해 이 사업이 가시화 된 것이다. 스님은 한국 정서의 근본에 무엇이 있는 가를 모두에게 알려주자는 서원을 가지고 있었다. 불갑사 내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사중 스님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항상 말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이 역시 만암 스님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만암 스님은 백양사에 주석하면서, 우선 절 살림의 내실을 다지고, 여유가 생기면 이를 비축해 두었다가, 가뭄 등으로 사하촌의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 "'내가 제일'이란 생각 수행에 가장 큰 방해 아집버리면 空心생겨"

그 정재를 풀었다. 또한 스님들의 울력의 범위를 백양사로만 한정하지 않고, 사하촌까지 확대해 지역 지역민들과 자주 만날 수 있게 해 이로인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도 만들면서 지역민들이 스님들을 믿고 따르게 했다.

스승의 가르침을 늘 잊지 않고 있다는 수산 스님은 "스승께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노력해오고는 있지만, 아직 그 가르침을 다 따르지 못했습니다. 만암 스님은 워낙 언행이 일치하고 늘 겸손했으며 공심으로 일을 처리하니 누구나 다 추앙할 수밖에 없었지요. 만암 스님은 항상 대중들과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당신 개인에게 해 끼치는 일은 그냥 웃어넘겼지만 남에게 해 끼치는 일은 크게 경책하셨어요. 그 분만큼 공과 사가 분명했던 스님도 없다고 봅니다. 또 거짓된 행동이나 신심을 위장하거나 거짓말은 금방 아셨어요."

요즘처럼 누구나 어렵다고 하며, 갈등이 많은 때일수록 부처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탐욕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다. 다욕(多欲)은 괴로움이라고 했고 생사피로가 탐욕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소욕(少欲)해 담담히 살아가면 몸과 마음이 자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예로 드셨다. 항상 남과 비교해 적게 가진 것을 괴로워하고 물질에 집착한다면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부터 비워버려야 합니다. 나부터 비워버리면 남을 도와주었다 해도, 내가 남을 도와주었다는 상이 없어야 죠. 오히려 내가 못 미쳤구나, 내가 복을 못 지어서 더 못 주는구나 이러한 미안한 생각을 가지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뭐 좀 냈다고 텔레비전에 사진 내고 신문에 큼직하게 이름 내고 하는 것은 복을 짓는 게 아닙니다. 우선 나부터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아집을 버리면 모든 게 편하고 화해가 저절로 됩니다. 아집이라는 것은 제가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것인데 수행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라 하는 것은 내가 잘 났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내가 조금 지고 들어가라는 것이지요. 무슨 일을 하든 사심이 없고 아집을 버리고 오로지 공심으로 추진하면 다 수긍하고 따르게 되어 화합이 저절로 됩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불굴스님(중)

불굴스님의 행자시절 이야기는 정말 눈물이 난다. 선산 도리사에서 13살 되던 해에 행자생활을 시작하여 고성 건봉사에서 수계할 때까지, 그 4년의 행자 시절은 스님에게는 보릿고개의 기억처럼 가슴에 남아 있다. 흔히 행자시절은 중노릇의 든든한 밑천인 만큼 고생스럽다고 말하지만, 불굴스님의 행자 생활은 그 고생이 마치 혹독하고 가난한 순례자의 역정 같다.

가장 신심 나던 행자시절은 선산 도리사에서 공양주 노릇하던 때였다고 말씀하신다. 당시 율사(律師)로 존경받던 종수 노스님을 모시고 행자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스님의 덕화와 가르침을 가까이서 배울 수 있었던 까닭이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짓고 청소하는 일이 조금도 힘들지 않았단다. 노스님 또한 그런 어린 행자를 무척 귀여워하시고 잘 보살펴 주셨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종수 노스님 밥에서 메뚜기 한 마리가 발견되는 일이 생겼다. 어린 공양주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분명 밥을 솥에서 풀 때에도 이상이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메뚜기 한 마리가 밥 속에 으깨지지도 않고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다. 밥을 지은 어린 행자는 대중들에게 눈물이 날 정도로 혼이 나고 꾸지람을 들었

4년 행자시절 갖은 고생
어떤 일이든 겁내지 않아

지만 종수 노스님은 껄껄 웃으시며 그 일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어린 행자는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짐을 꾸리고 그 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노스님께 폐를 끼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어린 공양주 시절을 회상하면 목이 메인다고 하신다. 그렇게 자신을 아껴주었던 노스님께 인사도 올리지 못하고 산을 내려올 때의 그 심정은 정든 집을 떠나오는 것 같았다고 한다. 눈물이 앞을 가려 한참을 절 아래에 앉아 있었단다. 아마 그 시절 그 어린 행자를 시기한 동료 행자가 몰래 메뚜기를 밥 속에 넣었는지도 모르겠다.

불굴스님은 또 주왕산 너머 청량산 깊은 암자에서 숯장사 하던 행자시절을 잊지 못한다. 긴 행자시절 가운데 가장 힘들고 배고팠던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청량산의 그 암자는 법당을 새로 지으려고 터를 닦아 놓고 있었다. 그래서 할 일이 태산 같았다. 무엇보다 그 암자에서는 숯을 구워 양식을 사고 나머지 돈으로 불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행자 한 사람은 일꾼이나 다름없었다. 아침 먹고 산에 올라가 숯 만들 나무를 베어 놓고 내려오면 하루해가 저물면 그 때, 스님은 보리밥 한 그릇 먹고 그 힘든 일을 했다. 숯을 만들어 지게에 지고 30리 길을 걸어 장에 내다 팔 때도 있었다. 어쩌다 소나기라도 만나면 얼굴은 물론 바지까지 시꺼먼 숯 물로 범벅이 되기도 했다. 숯을 팔고 빈 지게를 지고 그 먼 암자까지 돌아 올 때는 자신의 처지에 눈물이 나서 고갯마루에 서서 어머니를 불렀단다. 초등학교에 가고 올 때면 꼭 절 마당을 지나게 되었는데, 스님들의 모습이 참 좋았다. 그래서 스님이 되겠다고 나선 길이 어느새 고생길이 되었으니, 엄마 생각이 절로 날 만도 했을 것이다. 그 암자의 주지스님이 일만 시키는 것이 미안했던지 공부할 수 있는 스님을 소개해 줄 때까지 숯장사 행자로 졸곤 있었다.

청량산 암자에서의 행자생활은 불굴 스님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혼자 살 수 있는 자신감을 배우게 했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스님은 남에게 일을 잘 맡기지 않는다. 뚜닥뚜닥 망치질을 하면 움막 같은 집이 지어지고, 쓱싹 쓱싹 톱질을 하면 땔감이 될만한 나무 몇 짐이 금방 만들어진다. 아직도 힘이 장정 못지 않다. 어쩌다 젊은 우리가 도울라치면, 스님의 일손 앞에서는 아이 놀음밖에 안 된다. 지금 살고 계신 곳도 7할은 스님이 직접 고치고 지은 절이다. 일하는 요령이 생기고 일 앞에서 겁내지 않는 것, 이 모두가 청량산 암



자의 행자시절 덕분이라고 하신다.

또 스님은 강원도 낙산사에서도 행자시절을 보냈다. 그 옛날 신라의 도의선사가 공부자리를 찾아 강원도까지 북행북(北行北) 하였듯이, 도리사에서 시작된 스님의 행자시절도 마치 구법의 일정 같아서 흥미롭다. 당시 낙산사는 대처승이 주지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추운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추운 겨울 속옷도 입지 않고 얇은 나일론 바지 하나로 긴 겨울을 지냈고, 주지스님 요강을 비울라치면 손이 요강에 찍찍 달라붙을 지경이었단다. 지금도 겨울이 되면 그 당시 이야기가 단골 메뉴다. 그 만큼 오래 오래 지워지지 않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정월에 계를 받고 스님이 된다는 부푼 마음에 낙산사에서의 그 겨울을 춥지 않게 보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막상 정월이 되자, '중 될 자격이 없다' 면서 주지스님이 계를 주지 않았단다. 그 때의 낙담은 어린 나이에 큰 상처가 되었다고 한다.

중 되는 일이 그토록 힘들었던 불굴스님. 스님은 17살 때인 지난 67년 건봉사에서 수계를 받고 비로소 훤출한 출가 사문이 되었다. 그 멀고 긴 행자시절 얘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선재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는 여행 같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이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수입되어 화제다.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칼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닭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 (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비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줄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쇄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렝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당뇨 관련하여 특별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문의 ☎ (02) 3437-8282